**막0111 Note**

**◆Cross check : 시0207 사4201 히0105**

시0207. 내가 새겨진 법[호크:하카크(자르다,새기다,원시시대에 돌판이나 금속판에 새긴 법들을 제정하다)에서 유래,재정(裁定),지정,제정한,계명,규례,의무,율법,법령,규정,과업,몫]을 분명하게 포고할(싸파르:기록하다,열거하다,다시 세다,경축하다,선포하다,말하다,이야기하다,전하다) 것이니라,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느니라, 너는 내 아들이라, 오늘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.

사4201. 내종을 보라. 내가 그를 떠받치느니라(타마크:떠받치다,얻다,단단히 지키다,돕다,바싹 따르다,쳐들다,유지하다,보유하다,일어나 있다), 나의 택한 자, 그 자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느니라. 내가 그 자 위에 내 영(靈)을 놓았느니라, 그가 이방인들에게 정의 (미쉬파트: 판결,언도,공식적 선언, 법,소송,정의,권리나 특권,의식,예법,결정,재판,재판받다,정당한,바르게,정당한 절차,규례)을 내느니라(낳느니라).

Ω히0105. 이는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의 누구에게, "너는 내 아들이라, 오늘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"고 말씀하셨으며, 그리고 다시 "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며, 그리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느니라"고 말씀하셨음이냐?

Ω히0305. 그리고 후에 말해져야 하는 것들의 증언을 위해, 모세는 참으로 종으로서 그분의 온 집에서 믿을 만하였느니라 (피스토스:믿을 만한,신실한,믿는,신뢰하는,확신하는,충실한,진실한,충성),

히0306.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믿을 만하였으니, 그분의 집은 우리니라. 만약 우리가 확신(담대함)을 단단히 붙잡고, 또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확고히 붙잡는다면 그러하니라.

벧후0117. 이는 뛰어나신 영광으로부터 그에게 이같은 한 목소리가 임하였을 때에,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음이라 곧, "이 자는 나의 사랑 받는 아들이니라,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느니라".

벧후0118.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을 때에, 하늘로부터 나왔던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었느니라.